

이번엔 LG와 선수장사 의혹…‘더티 베이스볼’ 히어로즈, 파국으로 치달나?



넥센 히어로즈는 이장석 전 구단 대표이사가 주식분쟁과 배임·횡령죄로 구속 수감된데 이어 주축 배터리 조상우와 박동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트레이드 뒷거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메인스폰서인 넥센타이어가 후원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슈

3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넥센에 먹칠”…메인스폰서 조기 해지 움직임

‘박병호+15억 트레이드설’까지 불거져
넥센측 “최근 히어로즈 안 좋은 영향”

‘기업 이미지 실추’땀 해지 조항계약
“넥센타이어 조기해지 법적 하자 없다”

넥센 히어로즈가 프로야구계의 미꾸라지로 전락했다. 이장석 전 히어로즈 구단 대표이사가 주식분쟁과 배임·횡령죄로 구속 수감된데 이어 메인스폰서인 넥센타이어의 스폰서 비용 미지급(3~4월)으로 흥역을 앓았고, 주축 배터리 조상우와 박동원이 원정 3연전 기간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실상가상으로 28일 2017시즌 단행한 4건의 트레이드 중 2건에 걸쳐 이번계약에 따라 현금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29일에는 2011년 김성현과 송신영을 LG로 보내고

박병호와 심수창을 받은 트레이드 때도 현금 거래 15억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넥센과 LG, 두 구단은 “오래전 일이라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시선은 차갑기만하다. 더욱이 넥센은 이제 메인스폰서 계약 조기 종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평행선 달리는 히어로즈와 넥센타이어 관계
히어로즈는 2010시즌부터 메인스폰서 넥센타이어를 필두로 수많은 서브스폰서를 유치해 구단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넥센타이어와는 세 차례 계약을 연장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2016시즌 중반 이전 대표가 법원을 드나드는 처지가 되면서 양측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올 2월 14일 넥센타이어측이 이전 대표의 1심 선고(징역 4년 실형)와 관련해 “히어로즈 구단이 더욱 투명

하고 건전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과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관계가 더욱 악화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달 2일 “10구단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폰서비용 지급 재개를 결정한 뒤에도 “팬이 요구하는 개선안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냉정하게 바라봤다.

●메인스폰서 계약 조기종료 최악의 사태 맞나
그러나 이후 히어로즈 구단이 안정된 모습을 찾기는커녕 선수의 일탈과 현금트레이드 은폐 등 KBO리그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말았다. 한 법조계 판결이 연이어 터지고 말았다. 한 법조계 판결이 연이어 터지고 말았다. 한 법조계 판결이 연이어 터지고 말았다.

고 우려했다.

양측의 메인스폰서 계약서에는 ‘히어로즈 구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 메인스폰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는데, 히어로즈 구단관계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도 29일 통화에서 “최근 히어로즈 구단이 보여준 행보로 기업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는 이 전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됐을 때 ‘넥센 대표이사’ 등으로 언급된 것을 두고 심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히어로즈 구단과 넥센타이어 기업 양측의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금 당장 넥센타이어 측이 스폰서 계약을 해지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 문제(스폰서 계약 조기 해지)로 법정 싸움까지 가도 구단이 매우 불리한 위치”라고 귀띔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라모스 처벌하라’…1조원대 소송

축구 전문매체 골닷컴 등은 29일(한국시간) 이집트 변호사인 바셈 와바가 레알 마드리드의 세르히오 라모스(스페인)를 상대로 10억 유로(약 1조248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라모스는 지난 27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상대인 모하메스 살라(이집트)의 팔을 잡아당기며 넘어졌고, 살라는 왼쪽 어깨가 탈구되며 러시아월드컵 출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와바는 “살라의 부상으로 이집트 국민이 큰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에서 승리하면 보상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구치소 가면서도 당당…비뚤어진 스웨그

〈자신만의 멋과 분위기〉

씨잼·바스코 대마초 혐의로 입건
SNS에 “녹음 하고 들어간다” 논란



씨잼

유명 래퍼 바스코(신동열·37)와 씨잼(류성민·25)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코카인까지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구치소에 수감된 씨잼은 죄의식이 전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고 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씨잼은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문구 숙소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작년 11월에는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각각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스코 또한 같은 시기 서울 서대문구 자택 등지에서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지난해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한 번씩 투약한 혐의다. 씨잼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바스코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범죄 사실만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씨잼이 구속 직전 SNS에 “녹음은 다 해놓고 (구치소에)들어간다”고 적어 비난이 가중됐다. 죄 지은 사람의 자세라기에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질타였다. 여기에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18)가 “사랑합니다. 다녀오십시오”라고 응원하는

투의 댓글을 남겨 질타는 더욱 컸다.

이로 인해 씨잼과 바스코가 속한 힙합레이블 런치펀뮤직(저스트뮤직)과 그 수장인 래퍼 스웁스(32)를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아티스트 관리 소홀 문제도 있지만, 스웁스 역시 최진실의 어린 두 자녀를 랩 가사로 모욕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이 레이블 소속 또 다른 래퍼 블랙넛(29) 역시 구설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비판의 강도는 더 세다. 여성 래퍼 키디비(28)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블랙넛은 최근 법정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새 앨범을 홍보하는 엉뚱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씨잼은 지난달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나처럼 건방져야 한다. 남들의 눈치 볼 필요 없다”며 담배를 피웠고, 마약을 투약한 시기에도 엠넷 ‘쇼미더머니5’ 등 방송에 출연했다.

한 힙합레이블 대표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사회적 균형감각도 없는 이들의 비뚤어진 의식을 힙합의 스웨그와 혼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1등의 조건

게임을 리드해야 한다

충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과로 말해야 한다

올바른 미래예측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은퇴설계의 명가

KEB 하나은행

연금은 하나! KEB하나은행연금

- TDF 판매 은행권 1위 (2018년 3월 말기준, 출처:금융투자협회)
- 개인연금펀드 판매 은행권 1위 (2018년 3월 말기준, 출처:금융투자협회)
- 개인형 IRP 원리금보장형 은행권 수익률 1위 (시중은행 개인형 IRP 원리금보장형 과거 5년(2013~2017), 9년(2009~2017) 수익률, 출처:금융감독원 퇴직연금공감안내 비교표시)
- 은퇴설계전문가자격 (ARPS) 보유자 수 1위 (4,996명, 2018년 4월 말기준, 출처:한국 FPSB)

연금과 절세를 함께 누리는 KEB하나은행 IRP

- 은퇴 준비는 물론, 연말정산까지 해결하는 금융 솔루션
- 회사원부터 자영업자까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최대 1,155,000원까지 절세 혜택 (종합소득금액 4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금액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영유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월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연금 및 수익에 대해 가산소득세 (6.5%) 등 별도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의 예금으로 대상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안도는 규약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최고 50만 원이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하여 5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잔액투자상품은 예금과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보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통증권사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na.com),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일 제18-023112(2018.5.29)